

광주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논란 예고

폐지 조례안 주민조례 청구 절차 진행...내년 4월 19일까지 서명 광주 정서상 폐지 쉽지 않을 듯...전교조 "폐지 추진 단호히 대처"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전남 도의회가 최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서울시의회도 가세한 가운데 광주에서도 폐지 절차가 진행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1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종교단체 등이 주도해 광주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폐지 조례안이 발안돼 주민조례 청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이 폐기 대상으로 제시한 '광주시 학생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학생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학생 인권에 관

한 광주시교육청, 학교와 교직원·학생·보호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광주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만 강조해 한계와 책임이 없어 결과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후 학력이 떨어졌다. 학생인권조례는 성적체성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조례 제안 이유를 제시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주민 동의절차(서명)는 내년 4월19일까지 진행된다. 청구권자 총수 150분의 1(8034명)의 동의를 받으면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다. 이후 광주시의회 소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초로 제정된 후 서울을 비롯한 6개 교육청(서울, 경기, 충남, 광주, 전북,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를 존치 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교사의 권한이 축소로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광주에서는 충남, 서울과 달리 조례안 폐지가 시화하기 힘들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서울 등 타 지역과 달리 민주당이 주류여서 폐지 조례안이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인권도시라는 상징성과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지 않고 있어서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현재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해 논의의 바 없다"면서 "광주 정서상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광주시교육청과 전교조는 조례안 폐지에 대해서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박상철 대변인은 "광주지역 교육계와 시민회에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상식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만큼 조례안 폐지를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학생 인권 조례 폐지가 추진된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등 9명의 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고 성 문란을 조장하며, 학생의 권리만 보장하여 교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동조하여 조례 폐지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서울시의회 상정을 앞뒀지만, 전남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중단된 상태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선생님 존중합니다

전남학생의회, 교권 존중 선언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남 학생들이 교권 존중 실천을 선언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제5기 전남 학생의회는 19일 하반기 정기회를 열고 '교권 존중 실천 학생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전남 학생의회는 선언문에서 "전남의 학생은 배움의 주체로서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학교생활을 위해 선생님의 교육활동과 생활교육 방향을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의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존중의 언어로 소통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에 공동 대처할 것"을 다짐했다.

학생의회는 22개 시군 학생의원이 직접 촬영한 교권 존중 영상 캠페인을 유튜브 채널 '전남교육 나우(Now)'에 공개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학생들의 의견이 전남교육 정책에 반영·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춤추는 리틀 산타 19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북구청 광장 대형 성탄트리 앞에서 산타 복장을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춤을 추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1분 일찍 울린 종료벨에 수능 망쳤다"

수험생 39명 "1인당 2천만원 배상" 집단 소송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날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서 종료 벨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19일 교육당국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서울 경동고 학생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명진은 이날 수능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수능 날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치러진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렸다.

타종을 맡은 교사 A씨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린 탓이었다. 경동고는 수능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다.

수능 때 타종 방법은 자동과 수동이 있으며, 아직도 상당수 시험장에서 방송 시스템 오류를 우려해 수동 타종을 한다.

학교 측은 실수를 깨닫고 2교시가 종료된 후 다시 1교시 국어 시험지를 수험생에게 배부했다. 이후 수험생에게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줬다. 다만 답지 수정은 허락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타종 사고로 시험을 망친 것을 의식하면서 시험을 봐야 했기 때문에 평소의 실력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생은 시험을 포기하고 귀가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광주 시민, 운동 안한다

하루 20분 이상 주 3회 운동 등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전국 최저

광주지역민들이 전국에서 '중등도 신체활동'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도 신체활동은 최근 1주일 동안 하루 20분 이상 주 3회, 혹은 하루 30분 이상 주 5일 격렬한 신체활동을 말한다.

19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충북·경북에서 27.4%로 가장 높았고, 광주에서 21.2%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은 25.1%다.

심근경색증 조기증상을 인지율은 제주가 71.1%로 가장 높았지만, 광주가 40.8%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30세 이상 중 고혈압 진단 경험률은 강원이 22.8%로 가장 많았고, 광주는 16.7%로 가장 낮았다.

기초저자제 중 광주시 동구가 고위험 읍주율이 5.3%로 전국 기초 지자체중 가장 낮았다. 광주시 남구가 외출후 손씻기 실천율이 98.2%로 가장 높았다.

30세이상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전남이 95.4%로 가장 많았다.

지역미 질병정장은 "지자체에서는 지역 고유의 건강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 간 격차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건강지표 개선 또는 악화 추이를 지속해 점검해달라"며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보건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남구, 여성 폭력·디지털 성범죄 상담소 운영

양림동 광주YWCA 가정상담센터에...치료·회복 등 서비스

광주시 남구가 내년부터 폭력과 성범죄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위한 상담소를 운영한다.

남구는 스토킹과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에 따른 피해자를 위한 '여성폭력 피해 통합상담소'와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 상담소'를 내년부터 각각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남구는 국·시·비 3억원의 지원을 받아 상담소를 운영한다.

두 곳의 상담소 모두 광주시 남구 양림동에 있는 광주YWCA 가정상담센터 내에 마련된다. 운영을 맡는 광주 YWCA는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남구는 전문상담 인력 채용 및 각종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상담소는 범죄피해를 입은 여성이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치료·회복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남구 관계자는 "각종 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신중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kdi@kwangju.co.kr

환우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병원 부모님을 모셔도 좋은 "동행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 재활치료실 운영**
중증재활 / 인지기능 수술후 재활
- 요양병동 운영**
일반요양 / 전담간병인실운영 (24시간 간병인 상주)
- 한의 집중치료**
침·뜸·부항·약침·물리요법 등의 치료실 운영

의학, 한의학 협진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 수술 후 재활치료 | 근골격계 통증치료

면회공간
환우분의 만남의 장소가 병원1층에서 면회와 운동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작업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내 생활공유
환우분의 근황 및 일상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동행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 인공기관 | 2020.10.19 ~ 2024.10.18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31129-중-63255호